

구례·곡성·하동·광양 '모바일 스탬프 투어' 인기

3일 만에 1만8000명 참여 4월 2차 스탬프투어 시행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 주관으로 시행하는 섬진강 통합 관광벨트 모바일 스탬프 투어가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구례, 곡성, 하동, 광양 지역을 연계한 모바일 스탬프 투어가 시작 3일 만에 1만 8000명이 참여하며 섬진강권 관광시대에 탄력이 붙고 있어서다. 4개 지자체는 2차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오는 4월 추진,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13일 섬진강권 기초자치단체인 구례·곡성·하동군, 광양시 등에 따르면 지역을 연계한 통합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지난 10일 광양 매화축제장에서 '섬진강 관광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4개 지역 연계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진행했다.

전 국민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강관리 어플리케이션 '캐시워크'와 함께 진행한 이번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10일 개설된 후 3일 만인 13일 1만8000명이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미션을 완료한 참여자에게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최종 보상도 목표 인원 500명을 달성했다.

최종 보상 미션은 종료되었지만 챌린지에 참여하면 지리산역사문화관, 한국압화박물관, 구례수목원, 곡성기차마을, 압록상상스쿨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스탬프 장소별 랜덤 스탬프 캐시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2차 챌린지는 4월 22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수해의 아픔을 딛고 이제 본격적인 섬진강 통합 관광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며 "섬진강 전역과 남해안까지 연계하는 통합 관광벨트를 조성해 전국 최고 수변 관광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섬진강권 실무협의회 소속 구례군 관



구례, 곡성, 하동, 광양 지역을 연계한 모바일 스탬프 투어가 시작 3일만에 1만8000명이 참여하며 성과를 내는 등 섬진강권 관광시대에 탄력이 붙고 있다. 구례군 제공

계지는 "섬진강 연계 관광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섬진강 통합 관광시대를 열어가

는 4개 지자체(구례·곡성·하동·광양)에 관심 바란다"고 밝혔다. 구례=김상현 기자

배·사과 화상병 방제약제 공급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배·사과 재배 농가에 화상병 예방을 위한 사전 방제 지도 및 방제약제 공급에 나섰다.

13일 함평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화상병은 국가검역 병해충으로 지정된 세균병으로 사과나 배에 병이 발생하면 세균에 의해 잎, 줄기, 꽃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인다 고사한다.

화상병 사전방제 의무화에 따라 이달 말까지 동계 방제를 실시하고 4월부터 2회에 걸쳐 개화기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가는 정량을 살포해야 하며 약제 저항성 예방을 위해 동일 성분 약제를 2회 이상 살포해선 안된다.

화상병 농가 신고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화상병 의심주 발견 시 대표전화(1833-8572)로 신고해야 한다.

함평=신재현 기자

장성 봉암서원 춘향제 봉행 망암 변이중 선생 배향

장성군이 지난 11일 망암 변이중 선생이 배향된 봉암서원에서 춘향제를 열었다.

13일 장성군에 따르면 황주변씨 문중과 유림, 상무대 포병학교 신종승 대령과 변이중대대장 조원근 중령, 박병진 포병학교 주임원사, 이경래 변이중대대 주임원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선시대 문신인 변이중 선생은 임진왜란 당시 화차를 제작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앞서 제작된 문중 화차의 개량형으로 40정의 승차총통을 발사할 수 있는 무기다. 수레 사방에 방호판을 장착하고 그안에 병사가 들어가 운용하는 방식이다. 일본군의 조총에 맞서기 위해 사재를 털어 300기를 제작했다.

장성군 서삼면과 북이면에서 만들어 서해를 통해 행주로 옮겨졌으며 행주대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조현관은 지역구 이개호 국회의원, 아현관은 소영호 목포부시장, 종현관은 김형주 삼계고등학교장이 맡아 향사를 봉행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화순군청 복싱 주태웅 태극마크 임애지·박초롱 등 3명 배출

화순군청 복싱팀 주태웅이 항저우아시아 게임에 출전할 수 있는 국가대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남도체육회는 화순군청 주태웅이 경남 김해 김해문화체육관에서 열린 '2023년 국가대표 최종선발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국가대표에 최종 선발됐다고 13일 밝혔다.

국가대표 선발전 +92kg급에 출전한 주태웅은 준결승에서 서순중(성남시청)을 상대로 5대 0 판정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전에서 주태웅은 김도현(남해군청)을 만나 3대 2 판정승을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다.

전남은 1·2차 선발전 1위 임애지(화순군청)와 박초롱(화순군체육회)에 이어 주태웅까지 국가대표에 승선해 3명이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화순=김선종 기자



장성군이 지난 11일 망암 변이중 선생이 배향된 봉암서원에서 춘향제를 열었다. 장성군 제공

화순군, 8643억원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 편성

본예산보다 1137억 증액

화순군은 13일 올해 본예산보다 1137억원 증액한 8643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로 일반회계가 1086억원(16.9%) 증가한 7499억원,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50억원(4.6%) 증가한 1143억원이다.

화순전 꽃강길 조성사업(40억원), 길

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15억원) 등 공공질서·안전 분야에 83억원, 지역 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95억원), 화순 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10억원), 다지리 축구장 개보수 사업(8억원) 등 문화·관광 분야 177억원을 편성했다.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42억원), 개미산 전망대 조성사업(27억원), 조림지 풀베기 사업(20억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 373억원, 반려 동식물 테마파크 조

성(115억원), 청년·신혼부부 만원입대 주택 사업(24억원) 등 국토·지역개발에 238억원도 편성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이번 추경안은 문화·관광기반을 다지고 청년인구가 유입되고 살고 싶은 화순을 만들기 위해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화순군이 제출한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20일부터 개최하는 제2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화순=김선종 기자

나주시 '차별 없는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선정

국비 1억 확보 성과

나주시가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포용하는 시민이 학습하기 좋은 평생학습도시로 발돋움했다.

나주시는 올해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신규 선정돼 국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차별없는 학습도시 나

주를 비전으로 4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10개 분야 장애인 맞춤형 27개 평생학습을 추진한다.

4대 목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 인권공통체 구축,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 보장, 장애인 자립생활·건강권 확대다.

분야별론 기초문화, 학력보완,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교양 등 사회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의 자립 역량을 키우는데 중

점을 둔다.

시민참여, 장애인 사회통합, 가족세대 간 소통, 자발적 학습모임 지원, 장애인 학습도시 기반구축 등을 통해 사회 참여 기회를 늘리고 평생학습 기회도 폭넓게 보장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선정을 통해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박승엽 기자

일상회복지원금 1인당 20만원 곡성군, 27일부터 신청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13일 곡성군에 따르면 일상회복지원금 대상자는 12월 기준 곡성군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군민(영주권자·결혼이민자 포함)이다.

지급 대상자는 오는 27일부터 6월 말까지 신청서와 신분증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에 20만원 상당의 곡성심장상품권이 지급된다. 지급기준일 이후 관외 전입자, 지급기준일 이전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자, 재외국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신청 기간 동안 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처를 상시 운영하고 세대주 신청시 세대별 일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평일 방문이 어려운 경우 주말 사전예약제를 마련해 편의를 높였다.

마을로 찾아가는 집중 신청기간도 운영한다. 마을 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2인 1조로 조를 편성해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곡성=김대영 기자

자원순환제도 권역별 설명회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본부장 박종호)는 오는 16일 광주 테크노파크 생활지원로봇센터 대강당, 21일 무안 전남도립도서관 다목적강당, 23일 순천 호남호국기념관에서 '2023년 자원순환제도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폐기물부담금,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환경성보장제, 폐기물 처분부담금 등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자원순환제도에 대한 안내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에 따라 제도 전환되는 품목(폐기물부담금→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환경성보장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제도운영부 062-949-0305, 0315로 문의하면 된다.

조진용 기자